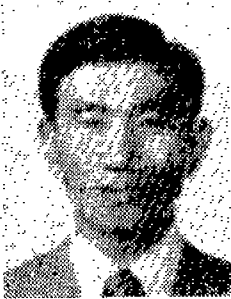


「새로운 本會」를 이끄는 얼굴들

~ 상임이사陣 「프로필」 ~
 <기구조 순>



<조상문
 위생간호학교장>

법제위원장

趙相文 이사

理事會의 書記이자 법제위원장에 발탁된 趙相文 이사(35세)는 전문직 여성단체인 본회의 유일한 靑一點이사.

전북 익산출신으로 59년에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나와 간호사업에 뜻을 둔 趙이사는 62년 위생간호학교를 졸업, 68년 산육대학 신학과를 거쳐 69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교육을 전공했다.

일반적으로 女性직종으로 간주되고있는 간호사업에 있어 趙이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무릅쓰고 간호학을 지망, 그 결실을 얻어 현재 위생간호학교의 교장직에서 간호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본회에서 지난 회기에 새로 발족된 간호연구기금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조이사는 앞으로 본회의 정관 세칙등의 수정 또는 諸法制面을 다지고 개선해 나갈 자못 기대가 큰 最年少이사이다.

간호계 인사들과의 대인관계가 남달리 원만하다는 조이사는 합리적인 이론가이며 폐기있는 正義파라는 주위의 평.

위생병원 수간호원 李重愛씨와의 사이에 1女 2男으로 다복한 가정의 家長이기도.



<이귀함
 서울의대간호학과장>

간호윤리위원장

李貴香 이사

간호윤리위원장을 맡게된 李貴香이사(64세)는 본회 50년 역사와 거의 때를 같이해 온 最年長의 이사다. 동란기인 51년부터 57년까지 서울시지부장, 본회제2부회장(60년), 제1부회장(66년), 또 지난 회기엔 간호교육위원장을 지내온 중견이사.

서울의대 간호학과 과장인 李이사는 1973년 제9회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았고 또한「간호윤리 및 직업적조정」의 저자(共著者)이기도 하다.

1922년 마산 의신여학교를 나와, 29년 세브란스간호학교 졸업, 그후 동명원에서 간호원 생활을 시작, 37년부터 47년까지 회령 캐나다 선교부 보건지도원으로 조산원을 개업한 바 있다.

1948년, 그당시 서울의대 부속간호고등학교 강사로 들어간 李이사는 동교 교장을 역임, 현재 학과장으로 계시다. 52년 10월 대관에서 열린 간호교육연구회에 1개월간 참석했고 55년부터 1년동안은 호주 「멜본」 대학에서 간호교육행정을 연구, 56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미네소타대학 대학원에서 간호교육행정을 연구한바 있다.

李이사는 지난 총회를 기해 본회산하에서 독립해 나간 대학간호학회의 명예회장이며 지금까지 학회장을 역임해온 간호계의 중진.

「새로운 本會」를 이끄는 얼굴들



〈김영매
가톨릭의대간호학과장〉

재정위원장

金永妹 이사

재정위원장에 임명되어 앞으로 팽배해진 본회 재정살림을 맡아줄 金永妹(59세)이사는 그동안 서울시지부 재정이사를 지내온 바 있는 회계에 밝은 新任이사.

금이사는 현재 가톨릭의대 간호학과장직에 있는 간호계 元老로 그의 세심하고 인자한 성품은 제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평이나 있다.

1933년 함흥영생여고를 나와 37년 세브란스의 전 부속병원간호학교를 졸업, 38년엔 일본 동경도 성토가여전 연구과를 졸업하고 그후 개성남성병원에서 간호원 생활을 시작, 부산 행복산보육원, 세브란스 병원등을 거쳐 54년부터 2년동안 중앙간호연구원기관 간호과장을 역임한바 있고 56년4월에 이대의대 간호학과에 조교수로 전임하면서 62년 동교 부속병원 부간호과장, 64년 10월에 가톨릭의대 간호학과로 옮겨 현재에 이르렀다.

서대문구 서교동 343번지에 자택을 둔 김이사는 슬하에 3女1男.



〈하영수
이대간호대학교수〉

간호교육위원장

河英洙 이사

간호교육위원장에 임명되어 앞으로 간호교육의 제반문제들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갈 河英洙이사는 그동안 서울시지부 부회장, 또 간호학회 총무를 역임해 왔으며 한편 본회 감사도 지낸바 있는 會務에 밝은 新任이사.

1950년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졸업, 하와이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54년)했으며, 6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후 교육계에 투신, 현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학생과장)로 있다.

금년 총회시 본회 산하에서 독립돼 나간 간호학회의 첫 회장에 당선되기도한 河이사는 간호학계의 理論家로 定評이 나있기도 하다. 간호학회와 간호교육위원회의 사업을 병행시켜 나가기에 안성맞춤의 여건이 되어 最適格위원장으로 주목을 끈다.

저서로는 “산소아과간호학”을 내놓아 교육계에 이바지해 왔고 금년도 출판부의 신간사업인 “아동간호학”저자라도 추대되어 현재 집필중에 있다.

간호계에서 미인으로도 손꼽히는 河이사는 이미 잘 알려진 연세의대 産婦人科 郭顯模교수를 夫人으로 슬하엔 딸만 4, 취미는 수영과 원예라고.

간호업무위원장

金順鳳 이사



〈김순봉
국립의료원간호과장〉

간호업무위원장에 임명되어 방대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金順鳳이사는 前年度에 경제복지위원장직을 맡아온 바 있는 중진이사.

올해 57세로, 1931년 평양중의여학교 졸업, 평양기독병원 간호학교를 45년에 나왔으며, 병원을 거쳐 48년 동위부입대 소위로 임관후 63년 제대하기 까지 계속 군활동에 이바지해온 분으로 48년엔 여순반란사건에도 참전하여 공로를 세운바 있고 61~63년엔 육군본부 의무감실 간호과장(대령)으로서 본회 군진지부장도 겸하면서 군간호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NMC간호과장인 金이사는 그전에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정신병원의 간호과장도 역임해 온바 있어 公職看護員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직급·처우개선문제엔 앞장서 손을 쓰고 있기도 하다.

상벌로는 52년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공비토벌기장과 금성화탕 무공훈장, 53년에 6·25사변 중군기장을 수여받았고 작년에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아 간호원으로서의 최고 영예를 누린 분이다. 군간호의 오랜 경력을 말해주듯 金이사의 폐기있는 성품은 늘 휘하간호원들의 마음튼튼한 기둥이 해주고 있다고. 슬하엔 1女.

출판위원장

金慕姪 이사



〈김모임
연세대간호대학교수〉

본회 기구에서 출판부가 출판국으로 승격, 독립되면서 첫 출판위원장에 발탁된 金慕姪이사(39세)는 다년간 미국 유학길에 있다가 작년 8월에 귀국, 후조처럼 나타난 협회로서는 新進人士.

작년도에 잇따라 탄생한 간호제박사중의 한분으로 한국의 유일한 보건학박사이기도 하다.

토박이 서울태생인 金이사는 현재 연세간호대학에서 田학장을 보필하고 있는 중견교수로서 田회장과는 이화여고 동창이기도 한데 지난 88주년 기념식엔 「母校를 빛낸 분」으로 뽑혀 함께 상을 받았다고.

연세의대 간호학과를 졸업(59년), 작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까지 참신한 학력을 쌓은 金이사는 학력 그대로 대단한 실력가라는 평이며 현재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총무부장도 맡고 있고 금번 간호학회의 부회장으로 피선되기도.

아름다운 金이사의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아직 미혼으로 언제든지 마땅한 배필만 나서면 결혼의 뜻이 있다고.

「새로운 本會」를 이끄는 얼굴들

경제복지위원장

洪貞惠 이사



〈홍정혜
대한적십자사보건의부장〉

경제복지위원장에 임명되어 간호원의 복지문제 향상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협회활동에 참여케. 될 洪貞惠이사(44세)는 급번 이사회의 副를 記이기도 한 신입이사.

원출한 체격에 성격면에서도 「스케일」이 크고 신용이 좋다는 洪이사는 과거 한때 본회 이사경험이 있어 앞으로의 그 활약에 기대가 크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보건부 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洪이사는 적십자정신과 간호정신을 함께 받아 몸으로 실현하고 있다.

1948년 이화여고를 졸업, 51년 세브란스간호학교를 나왔으며, 피난지인 부산에서 동아대학교문리대 영문과에 들어가 영문학을 수학한 바 있고, 69년엔 강원대학 행정과를 졸업했다.

51년, 캐나다선교회 행정보좌관으로 2년간 있었고 경남 보건의사의 보건간호원으로, 또 춘천시 보건의사 가족계획지도원으로, 강원도 보건과 등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기여해 왔다.

66년도 부터 3년간 성신여대 강사로도 활동해 온 洪이사는 南亭祐씨를 夫君으로 슬하엔 딸만 3.

섭외공보위원장

金順子 이사



〈김순자
고려의대간호학과교수〉

섭외공보위원장에 유임된 金順子이사(40세)는 1964년 본회집행부의 섭외부 간사로 협회활동을 개시, 1968년 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사회 書記로도 계속 활동해와 협회 일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중견이사.

1951년 수도여고를 나와 대구동산간호학교를 졸업했으며(54년) 단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 그 이전에 스칸디나비아 3국에 가 간호제도 및 간호교육을 시찰하고 돌아온 바도 있다.

고려의대 간호학과 교수로 현재 석사과정을 수확중.

「웁트」있는 활동가로 알려진 金이사는 그동안 섭외활동을 맡아오면서 「섭외공보활동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1만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섭외위원의 사명을 띠고 각기 행동으로서 간호원像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고로 협회일이라던 시간가는줄 모르고 해내는 의욕파이사라고 선배이사들은 말한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때와 총회때엔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일선장병 위문이다 새마을 사업이다 하면 으레 金이사의 지휘아래 이루어져 왔다.

충청북도 괴산출신으로 현 서대문구 자택엔 夫君 황인돈씨와의 사이에 1女 4男.

정보시대에 처한 현실결에서 앞으로 섭외 공보활동에 자못 기대가 크기만 하다.



회관관리위원장

洪英淑 이사

<홍영숙
적십자간호학교장>

지난연도에 출판위원장을 지냈고 이사회부서
기를 맡아온 洪英淑이사는 금번 회관관리 위원
장에 임명된 아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룬다는
은화한 성품의 중견이사.

49세에 접어든 洪이사는 1944년에 적십자 간
호학교를 졸업, 그해에 동교병원에서 간호원생
활을 시작, 50년에 간호원장, 55년부터 1년간 호
주 「멜본」대학에서 간호교육 및 간호행정을 연
구, 59년에 교육계로 전입하면서 건국대학교 국
문학과를 졸업하고(62년) 71년엔 연세대학교 교
육대학원을 졸업했다. 71년 2월부터 적십자 간
호학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同校발전에 지대하게 공이 큰 분이다.

간호계의 선배와 후배에 대해 세심한데 까지
도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洪이사는 達筆에 文章
력이 대단하다는 주위의 평.

교육자인李文相씨를 夫孀으로 슬하엔 1女 1
男. 自宅는 서대문구 홍파동 10번지.



간호연구기금위원장

方鎔子 이사

<방용자
성바로병원장>

지난 72년도에 제1부회장에 당선되어 1년간
역임하고 건강사정으로 사임한바 있는 方鎔子
(45세)이사는 금번 간호연구기금위원회를 맡게
되었다.

73년 3월 성바로병원장으로 부임하여 현재
에 이르기까지 그 막중한 병원업무를 잘 운영해
가고 있는 方이사는 여자로서의 또한 간호원로서
의 한국에서 드문 훌륭한 병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마포 태생인 方이사는 1945년 중앙여교
를 나와 48년 서울교통간호학교를 졸업했으며 同
병원에서 간호원생활을 시작, 49년부터 56년까
지 대구혜성병원 수간호원을 지냈고 그후 서울
성요셉간호학교 사감 및 강사로 근무, 63년엔 비
울빈 성바로대학을 졸업, 마닐라병원에 잠시
머물다 귀국하여 가톨릭의대부속성모병원에서 63
~67년까지 간호과장을 역임, 동교간호학과 교
학감을 지내면서 70년엔 간호대학원을 졸업. 현
재 부교수를 겸하고 있다. 옷차림서부터 근엄한
분위기를 풍기는 方이사는 조직적인 思考力を
지닌 理論家로 알려졌다.

父親 方淳昌씨의 6男妹中 딸이인 方이사는 한
편 전국 修女界의 권위자이기도 하다.